

【第3種郵便物認可】

中共전문가 中嶋嶺雄교수에 들는다

기본의 美國의 基本的

가로서는 같은 일천이 있게 마련
이지요. 따라서 대령하더라도 항
상 거기에는復元力. 곧 원상복
귀를 지향하는 힘이 물질이고 있
어 대령이 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원력이 특히 지도자의 교제시기
에는 되살아나고합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이 죽음을 빼 遭禍東은
대단히 즐거워했는데 이는 「스탈
린」시대에 좋지 않았던 中蘇관계
가 그이전으로 돌아가게 될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후후시조」나 「볼가린」들이 당
시 北京을 발포해 1954년
中蘇는 대단히 우호적이 참
된 협동관계가 되었고 죽는 이
에 아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
시 中蘇간에 대령이 생겨되고
「브레즈네프」시대로 점이들면서
中蘇는 적辱한 대립상태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러자 毛澤東이 죽
었으며 蘇聯은 후계체제에 대해
기대하는 의미에서도 매우 부드
러운 절차를 해왕합합니다. 그리고
「브레즈네프」가 죽자 이때부터는
中共도 전적으로 대응해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번 「체르
네코」가 죽자 李鵬부수상이 訪
蘇, 드디어 「고르바초프」와 두 차례
에 청진을 떠나고 . 이
같은 흥물에서 생각해보면 中蘇

결국의 들여적인 물질임이 아니
고 中蘇관계 기본바탕은 같은 동
맹관계인바 이것이 어려가자 원
인에 의해 결별로기도 했지만 사
실은 復元力이 물질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외부세계에서는
과거에는 「中蘇한통속」이라는 神
話만 믿다가 그래에는 「中蘇대립」
이라는 충분만 보아있으므로 놀
라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中共은 소위 對蘇대결의 명
분인 「3대장애」(三種地壘)를 그
대로 둔채 蘇聯파의 관계개선을
꾀하려는듯하네. 이처럼 中蘇상을
가 광제회복을 서두르고 있는 전략
전배경은...。

【우선 「3대장애」문제인데 나는
中共의 하나의 戰略戰術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中蘇관계를 잘
유도해나가려는 큰전략으로서 이
를 바탕으로 82년9월의中共
12회당대회전후부터 中蘇관
계는 사실상 크게 움직여 왔
습니다. 「3대장애」란 蒙타나 中
蘇경계에 蘇聯사이 었으니 왜

基本的인司盟관계는不動

美國의 對아시아戰略에 「큰짐」 韓國엔 別無影響

—中共은 소위 對蘇抗擊의 명 분인 「3대장애」(전제조건)를 그 대로 투체 蘇聯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는 득한데 이처럼 中蘇상을 관계회복을 선구하고 있는 전략적 배경이...。

『우선 「3대장애」투체인데 나누 中共의 하나의 戰略 戰術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中蘇관계를 잘 유도해나가려는 근본략으로서 이 를 바탕으로 82년 9월의 中共 12회 당대회 전후부터 中蘇관 계는 사실상 크게 움직여 왔습니다. 「3대장애」란 莫其名나 中蘇聯성이 있으니 돼

이가게 되고 할수 있고 그런
미에서 국제 철도에 매우 큰 역할
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中蘇를 모두 「형제」으로
시고 있는 北韓 솔曰成의 열정
어떻게 될것이지.

『韓半島에도 삼당한 역할을
칠것으로 봅니다. 北韓의 솔曰
은 이제까지 「모스크바」와 北
의 사이에서 출입기를 해 왔던
때문에 中蘇합방으로부터 기
적으로는 그다지 신음을 밟지
했었고 그걸이 솔曰成의 비극
었던 겁니다. 그 솔曰성이 中
관체가 좋았을때 따라 째 만들

國의 北方政策, 韓國 산권의 교통
어떤 영향을 기칠 것으로 보이-
는지요.
『예를 들어 문화교류들이 이를
어진다 할지라도 韓國에 있어
장동오한 외교적 승리까지 결정적
가를 생각할때 아무래도 그정-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蘇聯과 보-
는 우호력 北朝족이 간단치 않-
동합니다. 우선 蘇聯족이 그
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남북과
 هو를 인정하는 그려국가도 있고
또는 西方족의 고佬스와
일정에 가까운 나라도 있고
같은 종족처럼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요。이련점에서 볼때 비록 北京이
北韓을 의식해서 韓國을 승인한
지않는다 할지라도 韓國으로서는
전혀 보죽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 올림픽은 그대로 두어도
聯과 中共이 올것으로 생각한다.
다. 문화교류·스포츠교류등은
현나가는게 좋지만 거기에는
시한계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
나 韓國은 그 한계에 넘지
하지 않고 보다 새로운 太平洋
대의 韓國이라는 입장에서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wearing thick-rimmed glasses, a light-colored shirt, and a dark tie. He is looking slightly to his left.

<略歴> 1936年生 東京大대학원을 현東京外大교수 (국제관계론) <저서> 「北京烈火」 (선도리학술상) 「中蘇 대립과 현대」 「현대中國의 정치와 전략」

卷之三

고 있다고 불러온다. 즉 이제는 그 보지 않고도 「모스크바」에도 갈 수 있게 됐고, 北京에도 갈 수 있게 됐고, 「北韓」으로서는 그 뒤지지 않으나, 中蘇사이에서 우호적 관계를 맺고, 韓半島의 기본정책을 確定한 국이 제안한 四晉合璧으로, 그것인가 아니면 어디까지나 平壤으로 이제 안한 三國회담쪽으로 갈 것이다.

제아니나 하는 생각입니다. 中蘇聯이 하면 蘇聯과의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가요? 北韓과의 입장이 있었던 만 蘇聯과의 입장이 있었던 점에 응하지는 않겠지요. 中共과 뛰리해도 北韓과의 우호관계가 기습합니다.